
I. 테마진단

◆ 개인생명보험의 신계약 동향과 시사점- 보험종목과 판매채널을 중심으로

이경희 전문연구위원, 김세중 선임연구원

1. 문제제기

생명보험상품의 신계약은 향후 보험회사의 성장성, 이익률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FY2006~FY2010 1분기 동안 개인생명보험의 신계약을 납입 방법(월납 vs. 일시납), 보험종목(보장성 vs. 금융형), 판매채널(설계사 vs. 방카슈랑스)별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을 계기로 향후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관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신계약 정보는 아직 제한적이어서 언론을 통해 단편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산업 전체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 각종 지표 분석은 주로 전체 수입보험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까지 신계약 매출에 대한 통계 집계 및 분석이 일반적이지 않음.
 - 주계약과 특약이 혼재되어 있는 생명보험 상품의 특성상 담보를 중심으로 한 구분도 명확하지 않음.
- 현행 업무보고서상 신계약 정보는 납입 방법에 대한 조정 없이 월납과 일시납을 단순 합산하므로 일시납의 영향력이 매우 커져 상품 포트폴리오와 판매채널 측면에서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음.
 - 일시납 비중이 높은 금융형보험이 월납 중심인 보장성보험을 압도하게 되어 전체적인 신계약 특성이 금융형보험 중심으로 나타나게 됨.

- 판매채널 실적도 일시납 판매 비중이 높은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실제보다 높게 추정될 우려가 있음.

■ 신계약 상품 및 채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고에서는 통일된 상품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입수한 후, 신계약 보험료를 월납·일시납·연납화(Annualize Premium Equivalent)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함.

- 통일된 기준에 의거하여 신계약 데이터를 제출한 회사는 21개사¹⁾이며, 대상 기간은 FY2006 1/4분기~FY2010 1/4분기임.
- 분석 대상을 개인보험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일반계정 단체보험과 특별계정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은 제외시킴.
- 상품 종류는 먼저 보장성과 금융형으로 대분류하고, 보장성보험은 사망보장과 생존보장, 금융형은 연금과 저축으로 중분류함.
 - 사망보장에 속하는 보험은 종신, 치명적질병(CI: critical illness)종신, 변액종신, 변액 CI종신, 정기보험으로 소분류하고, 통합형 보험은 주계약 성격에 부합하는 종목으로 분류함.²⁾
 - 생존보장에 속하는 보험은 실손의료, 장기간병, 질병, 상해, 어린이 및 기타로 소분류하는데, 질병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장기간병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건강보장 보험(예: 암보험)을 포함함.
 - 연금은 주계약 부리이율이 확정형인 금리확정형과 변동형인 금리변동형, 실적배당형인 변액연금으로 소분류함.
 - 저축보험은 보장성과 연금 이외의 보험으로 금리확정형·금리변동형저축, 변액저축, 교육보험을 포함함.

1) 데이터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없는 1개사는 제외시킴. 전체 생명보험회사(22개사) 대비 21개사가 차지하는 수입보험료 비중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94~98%에 달해 전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으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음.

2) CI보험에서 장기간병 진단을 선지급형으로 설계하는 경우는 CI보험으로 구분하며, CI정기보험은 정기보험으로 구분함.

〈표 1〉 개인보험 상품 분류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장성	사망보장	- 종신 - CI종신 - 변액종신 - 변액CI종신 - 정기	금융형	연금	- 금리확정형 - 금리변동형 - 변액
	생존보장	- 실손의료 - 장기간병 - 질병 - 상해 - 어린이 - 기타		저축	- 금리확정형 - 금리변동형 - 변액

■ 판매채널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구분하고, 대면 채널은 다시 설계사, 대리점(GA: general agency), 방카슈랑스로 세분하며, 비 대면채널은 전화 판매(TM: telemarketing), 인터넷 판매(CM: cyber marketing), 홈쇼핑, 다이렉트 대리점 및 기타로 세분함.

- 비대면채널 중 전화판매(TM)는 회사에서 직접 운영(센타)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다이렉트 대리점은 보험회사가 법인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전화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함.
- 분석대상을 개인보험으로 한정함에 따라 단체보험이나 퇴직보험·퇴직연금을 판매하는 임직원 판매채널은 제외함.

〈표 2〉 판매채널 분류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대면	설계사		비대면	전화 판매(TM)
	대리점(GA)	- 개인대리점 - 법인대리점		인터넷 판매(CM)
	방카슈랑스			홈쇼핑
				다이렉트 대리점
			기타	

2. 초회보험료 추이

가. 월납 초회보험료

개인생명보험의 월납 초회보험료 규모는 연간 1조 4천억원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이를 보임. 보장성보험은 FY2006~FY2008 동안에는 축소되었으나 FY2009 이후 회복세로 진입하였으며, 금융형보험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FY2008~FY2009 축소되었으나 FY2010 1분기 들어서는 큰 폭으로 회복됨. FY2010 1/4분기 기준 보장성과 금융형의 비중은 대략 40% : 60% 수준임.

- FY2006~FY2009 개인생명보험의 월납 초회보험료 규모는 1조 4천억원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보장성보험은 FY2006 6천억원에 달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사망보장 시장의 확대에 따라 FY2009를 계기로 반등함.
 - 금융형보험은 FY2007 1조원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시장이 축소되어 FY2009에는 7,859억원 수준으로 축소됨.

- 보장성보험에서는 생존보장에 비해 사망보장의 시장 회복이 큰 것으로 나타남(소분류 기준 종목별 현황은 <부록 표 1> 참조).
 - 사망보장 중 CI종신보험을 중심으로 한 통합형 보험 출시 이후 CI종신보험의 월납 초회보험료 규모는 FY2008 1,576억원에서 FY2009에는 3,165억원으로 확대되었음.
 - 정기보험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매년 증대되는 추이를 보임(FY2006 191억원→FY2009 243억원).
 - 이에 비해 생존보장의 시장 규모는 1천억원 수준으로 낮아져 사망보장의 20%에 불과한 수준임.
 - 생존보장 월납 초회보험료 규모가 FY2006 1,679억원에 달했음을 감안할 때 짧은 시간 내에 매우 빠른 속도로 보장성보험 내 사망보장과 생존보장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2009년 10월 1일 이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표준화 조치³⁾를 시행한 실손의료보험은 월납 초회보험료 규모가 FY2009 186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상품은 여전히 손해보험회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는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 개인보험 상품별 월납 초회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보장성	6,184	5,414	4,616	6,389	1,160	1,286
- 사망보장	4,505	3,830	3,662	5,362	916	1,078
- 생존보장	1,679	1,584	953	1,026	244	208
금융형	8,540	10,733	9,384	7,859	1,520	1,991
- 연금	4,901	6,680	5,490	4,960	891	1,182
- 저축	3,639	4,054	3,894	2,899	628	809
개인보험 계	14,724	16,147	14,000	14,248	2,680	3,277

자료 : 21개 생명보험회사 실적지

■ 월납 초회보험료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보장성보험이 FY2009 들어 반등한 데 힘입어 FY2009에는 1.8% 플러스 성장하고, FY2010 1/4분기에는 22.3%로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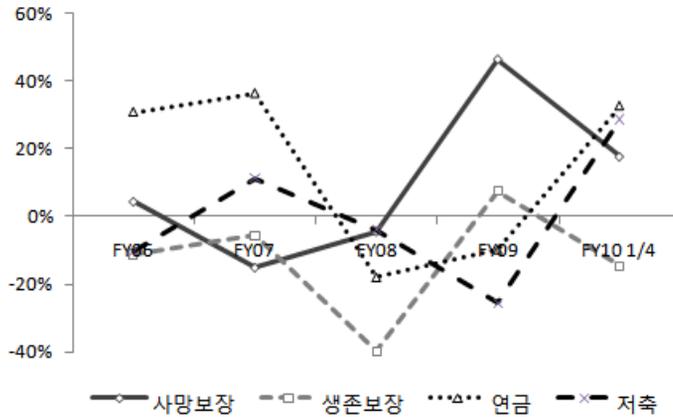
○ 보장성보험은 사망보장과 생존보장 모두 FY2009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나, FY2010 1/4분기에는 사망보장만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 갔음.

- 생존보장의 월납 초회보험료는 규모가 작아서 변동성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금융형보험은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모두 FY2009까지는 마이너스 성장하였으나, FY2010 1/4분기 들어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섬.

3)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보장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였으며, 상품유형·보장범위·운영방식 등을 표준안으로 통일시킴.

〈그림 1〉 개인보험 상품별 월납 초회보험료 성장률 추이



■ 월납 초회보험료 기준 보장성과 금융형의 비중은 연도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평균적으로 40% :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보장성보험의 비중은 FY2006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FY2008에는 33.0% 수준까지 낮아졌다가 FY2009 이후에는 다시 40% 수준을 회복하였음.

- 사망보장의 비중은 FY2006 30.6%에서 FY2007에는 23.7%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나 신상품 출시 등에 힘입어 FY2009 이후에는 30% 수준을 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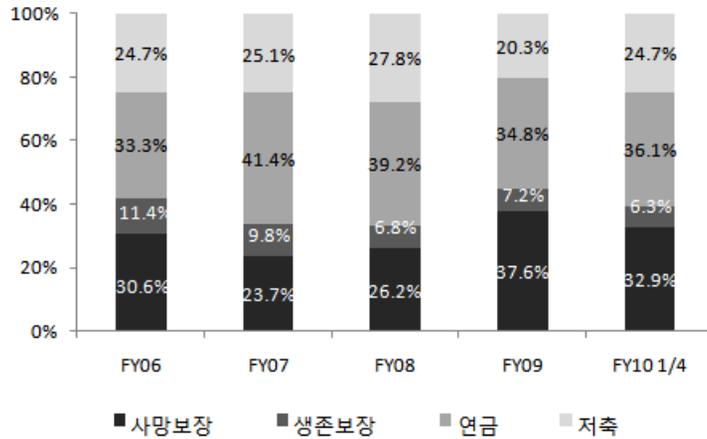
- 이에 비해 생존보장 비중은 FY2006 11.4%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다가 FY2009에는 실손의료보험 판매효과에 힘입어 소폭 회복되었으나 다시 FY2010 1/4분기에는 6.3% 수준으로 낮아짐.

- 이와 같이 생존보장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현상은 동 분야의 위험률이 급증함에 따라 생명보험회사가 질병보험, 상해보험 부문에서 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신규 판매 중단, 언더라이팅 강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로 판단됨.

○ 반면, 금융형보험의 비중은 FY2007에 67.0%까지 높아진 이후 급락하였으나 FY2010 1/4분기 들어 다시 60%대 초반 수준을 회복함.

- FY2005에는 저축보험 비중이 연금보험 비중보다 소폭 높았으나, FY2006 이후에는 연금보험의 비중이 저축보험의 비중보다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개인보험 상품별 월납 초회보험료 비중 추이



나. 일시납 보험료

FY2009 기준 5조원에 달하는 일시납 계약은 주로 금융형보험을 중심으로 체결되고 있는데, 금융형 일시납 보험료 규모는 금리·주가·판매채널 등 보험회사 외부 요인으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개인보험의 전체 일시납 보험료 규모는 최대 7조 1천억원(FY2007), 최저 3조 8천억원(FY2008)에 달할 정도로 연도별 편차가 큰 시장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5조원 정도의 일시납 보험료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 보장성보험의 일시납보험료는 FY2006에는 2천 5백억원 수준이었으나 사망보장 부문에서 매년 크게 감소함에 따라 FY2009에는 88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일시납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형보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등세를 보여 FY2009 4조 9천억원(연금보험 3조 2천억원 vs. 저축보험 1조 7천억원)을 기록하였음(소분류 기준 종목별 현황은 〈부록 표 2〉 참조).
 - 일시납 금융형보험의 대부분은 금리변동형(연금보험 2조 4천억원, 저축보험 1조 5천억원) 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시납 중 변액상품은 연금보험 8천억원, 저축보험 1천억원 수준으로 축소됨.

(표 4) 개인보험 상품별 일시납 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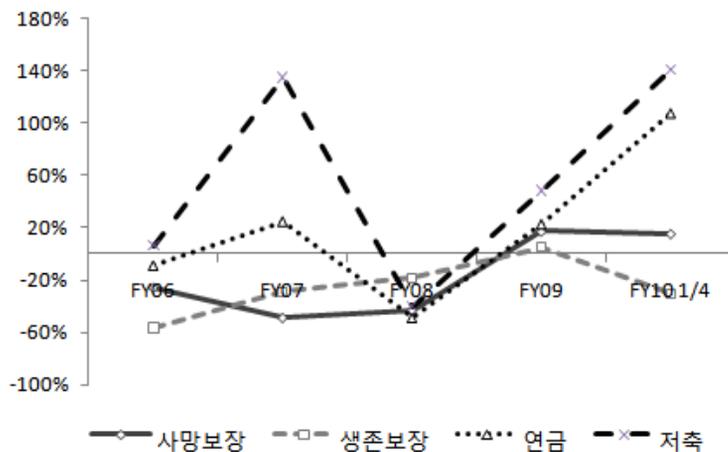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보장성	2,470	1,294	758	883	166	186
- 사망보장	2,355	1,213	691	813	152	176
- 생존보장	115	82	67	70	14	10
금융형	49,145	70,158	37,642	49,175	7,590	16,587
- 연금	41,239	51,568	26,489	32,586	5,087	10,559
- 저축	7,906	18,590	11,153	16,589	2,502	6,028
개인보험 계	51,615	71,453	38,400	50,058	7,756	16,773

자료 : 21개 생명보험회사 실적치

■ 금융형보험의 일시납 보험료 성장률은 변동 폭이 매우 크고 불규칙적이어서 일정 추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시납 보험 계약이 경제 성장, 금리, 주가, 판매채널(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 전략)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풀이됨.

- 변액연금 및 변액유니버설 일시납 보험료는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였던 FY2007에는 70~200% 성장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침체를 보인 FY2008에는 66~75% 축소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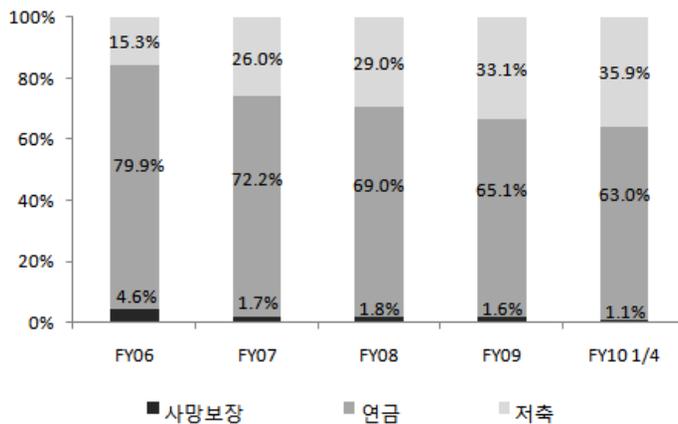
(그림 3) 개인보험 상품별 일시납 보험료 성장률 추이



■ 전체 일시납 계약 중 99% 정도가 금융형이며 금융형 중에서도 특히 연금보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시납 보험료 중 연금보험의 비중은 FY2006에는 79.9%에 달했으나, 점차 축소되어 FY2010 1분기에는 63.0%로 낮아짐.
- 이에 비해 저축보험의 비중은 FY2006에는 15.3%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FY2010 1분기에는 35.9%를 기록함.
- 보장성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FY2006에는 4.8%에 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FY2009 이후에는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개인보험 상품별 일시납 보험료 비중 추이



다.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신계약 매출 추이를 연납화 보험료 지표로 보면, FY2009 들어 보장성보험 성장세가 높고, FY2010 1분기에는 금융형보험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월납 초회보험료 기준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임.

■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는 월납·2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일시납 등 모든 납입 형태의 보험료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신규 매출을 평가하는 지표임.

- 산출 방식은 [(월납 초회보험료×12)+(2월납 초회보험료×6)+(3월납 초회보험료×4)+(6월납 초회보험료×2)+연납 초회보험료+일시납 보험료/10]에 의함.
- 납입 방식 간 보험료 규모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여 연간 유입되는 보험료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식은 월납과 일시납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에 비해 신계약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개인보험의 전체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볼 때 FY2009 17조 7천억원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분기 기준으로는 FY2010 1/4분기 4조 1천억원 수준으로 높아짐.

- FY2009 기준 보장성보험의 규모는 7조 8천억원으로 나타나 최근 4년 실적 중 최고치를 기록함.
- 금융형보험의 규모는 9조 9천억원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월납 계약에서 신계약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임.

〈표 5〉 개인보험 상품별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보장성	75,533	66,099	56,389	77,638	14,142	15,607
- 사망보장	54,445	46,175	44,096	64,521	11,011	12,980
- 생존보장	21,088	19,924	12,293	13,097	3,112	2,627
금융형	107,422	135,842	116,523	99,342	19,014	25,588
- 연금	62,959	85,330	68,667	62,838	11,214	15,253
- 저축	44,463	50,512	47,856	36,504	7,800	10,335
개인보험 계	182,955	201,941	172,912	176,980	33,156	41,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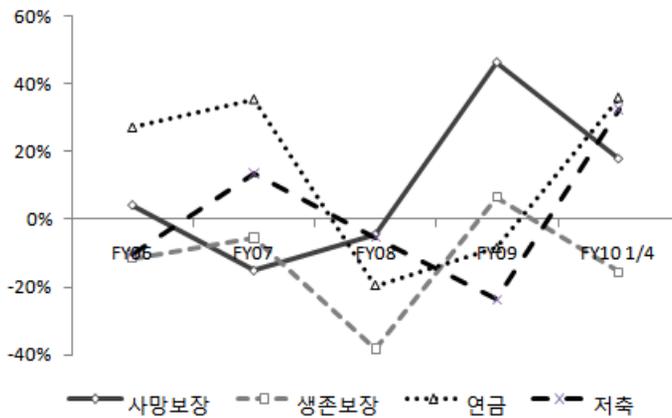
자료: 21개 생명보험회사 실적치

■ 연납화 보험료 지표로 환산하면, 월납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12배를 곱하는데 비해 일시납은 10으로 나누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계약 추이(성장률 및 구성비)가 월납 초회보험료와 매우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남.

■ 개인보험의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는 FY2008 14.4% 감소세에서 FY2009 2.4% 증가세로 회복되었고, FY2010 1분기에는 24.2% 성장함에 따라 신계약 측면에서는 성장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임.

○ FY2010 1분기 기준 연납화 보험료 성장률은 보장성보험이 10.4%(사망보장 17.9% vs. 생존보장 -15.6%), 금융형보험(연금보험 36.0% vs. 저축보험 32.5%)이 34.6%에 달해 금융형보험의 성장세가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개인보험 상품별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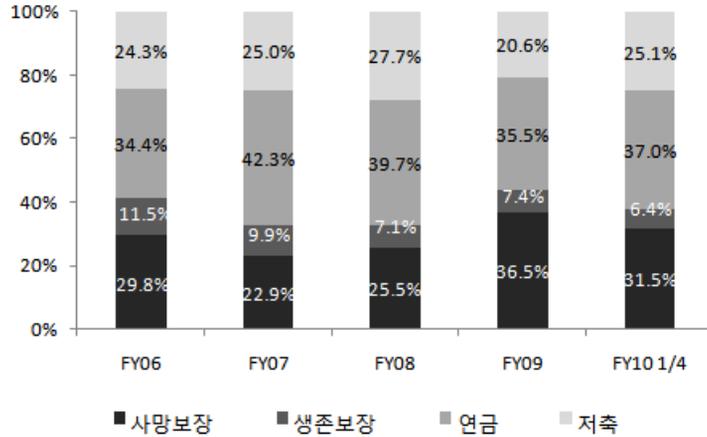


■ FY2009 기준으로 볼 때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에서 보장성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FY2006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특히 사망보장의 비중(FY2005 29.8%→FY2009 36.5%) 확대가 두드러짐.

○ 대체적으로 금융형보험 비중이 보장성보험보다 15~17%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FY2007~FY2008에 35%p 수준으로 차이가 확대되었고, FY2009 이후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남.

- FY2007~FY2008에 보장성보험 비중이 크게 축소된 것은 종신·CI보험 부분의 포화로 신계약이 급속히 축소되었고, 암보험 부문에서의 손실이 확대되어 신규 판매를 중단하는 회사가 늘어났기 때문임.

〈그림 6〉 개인보험 상품별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비중 추이



- 월납과 일시납을 구분하지 않고 신계약을 단순 합계한 초회보험료 기준에 의하면 보장성 보험의 신계약 비중은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납입 방식 간 차이를 조정한 연납화 보험료 기준으로 산출하면 보장성보험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장성보험의 비중은 월납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산출하면 40% 수준으로 파악되며, 연납화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보다 1%p 낮은 수준임.
 - 이와 같은 현상은 보장성보험의 경우 금융형보험과 달리 일시납 비중이 극히 미미하며 대부분이 월납 계약으로 체결되기 때문임.

〈표 6〉 신계약 집계 방식 별 보장성보험 비중 추이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10 1/4
월납+일시납 초회보험료(A)	12.2	6.7	8.6	9.2	7.4
월납 초회보험료(B)	42.0	33.5	33.0	44.8	39.2
연납화 초회보험료(C)	41.3	32.7	32.6	43.9	37.9

자료 : A는 업무보고서상 22개 생명보험회사 실적이며, B와 C는 새로운 기준으로 집계한 21개 생명보험회사 실적치

3.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

가. 월납 초회보험료

월납 초회보험료 중 설계사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63%를 점유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이 GA, 방카슈랑스, 비대면 채널 순으로 나타남. GA채널은 FY2010 1분기 들어 소폭 축소된 반면, 방카슈랑스 채널이 크게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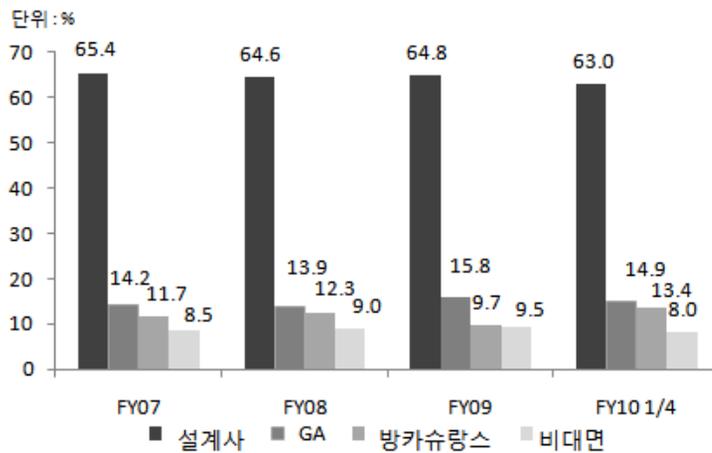
- 월납 초회보험료 중 대면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수준을 상회하여 아직까지 절대적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비대면 채널은 10%를 넘어서지 못한 수준임.
 - 대면 채널 중에서는 설계사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쟁 채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월납 신계약 부문에서 설계사 채널의 활용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리점 비중은 법인대리점의 성장에 따라 점차 증대되는 추이(FY2006 12.1%→FY2009 15.8%)를 보이다가 FY2010 1/4분기 들어 소폭 축소되었음.
 - 월납 신계약에서 방카슈랑스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비대면 채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채널은 TM으로 6% 수준에 달하며, 이어 홈쇼핑, 다이렉트 대리점, CM 순으로 나타남.
 - 월납 초회보험료에서 홈쇼핑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FY2006에는 2.2%에 달했으나 FY2009에는 1.8%로 낮아지고, 이어 FY2010 1/4분기에는 1.1% 수준으로 급락함.

〈표 7〉 판매채널별 개인보험 월납 초회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10 1/4
대면	91.5	91.5	91.0	90.5	92.0
설계사	65.3	65.4	64.6	64.8	63.0
대리점(GA)	12.1	14.2	13.9	15.8	14.9
개인	2.6	2.8	2.2	1.8	1.3
법인	9.5	11.3	11.7	14.0	13.6
방카슈랑스	13.9	11.7	12.3	9.7	13.4
기타	0.2	0.2	0.2	0.2	0.6
비대면	8.5	8.5	9.0	9.5	8.0
TM	4.8	5.3	5.8	6.1	5.8
CM	0.1	0.1	0.1	0.2	0.1
홈쇼핑	2.2	1.9	1.9	1.8	1.1
다이렉트 대리점	1.4	1.1	1.2	1.3	1.1
기타	0.0	0.0	0.0	0.0	0.0

〈그림 7〉 주요 채널의 개인보험 월납 초회보험료 비중 추이



나. 일시납 보험료

일시납 보험료에서 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빠른 속도로 축소되어 20%대에 불과한 반면, 방카슈랑스 채널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70%대를 돌파함. 일시납 계약에서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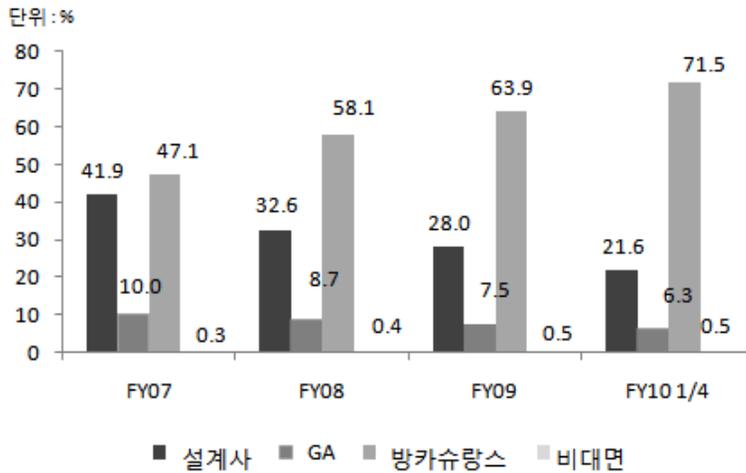
- 일시납 보험료에서 방카슈랑스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초과할 정도로 높아 방카슈랑스 채널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남.
 - 설계사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FY2006 45.4%→FY2010 1/4분기 21.6%)되어 온 반면, 방카슈랑스 채널은 지속적으로 비중이 확대되어 FY2010 1/4분기에는 70%를 초과할 정도로 높아짐.
 - 다른 채널에 비해 방카슈랑스 채널은 자행 은행 예금과 대체관계에 있는 일시납 저축보험 및 일시납 연금보험 판매에 비교우위를 갖기 때문임.
 - 대형사에 비해 설계사 조직이 약한 중소형사가 방카슈랑스 채널을 활용하여 금융형 보험을 집중적으로 판매한 영업전략의 결과임.
 - 대리점 채널의 비중은 FY2007에는 10.0%까지 높아졌으나 FY2010 1/4분기에는 6.3% 수준으로 낮아짐.
 - 일시납 보험료에서 비대면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은 수준(0.5% 이하)으로 나타남.

〈표 8〉 판매채널별 개인보험 일시납 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10 1/4
대면	99.8	99.7	99.6	99.5	99.5
설계사	45.4	41.9	32.6	28.0	21.6
대리점(GA)	6.4	10.0	8.7	7.5	6.3
개인	1.1	2.5	1.4	0.8	0.8
법인	5.3	7.5	7.3	6.7	5.5
방카슈랑스	47.8	47.1	58.1	63.9	71.5
기타	0.2	0.7	0.3	0.1	0.1
비대면	0.2	0.3	0.4	0.5	0.5
TM	0.1	0.2	0.3	0.4	0.4
CM	0.0	0.0	0.0	0.0	0.0
홈쇼핑	0.1	0.0	0.1	0.0	0.0
다이렉트 대리점	0.0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그림 8〉 주요 채널의 개인보험 일시납 보험료 비중



다. 연납화 보험료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기준 판매채널 별 비중은 설계사가 60%대를 초과하여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방카슈랑스 15%, 대리점 14%, 비대면 채널 7%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설계사와 비대면 채널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독립대리점(GA)과 방카슈랑스 채널이 성장하고 있음.

-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기준 대면채널 비중은 92% 수준에 달하며, 비대면 채널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채널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면 채널 의존도가 크게 높음.
 - 대면 채널 의존도는 설계사 비중이 60% 수준을 초과하여 가장 높고, 방카슈랑스 15%, 대리점(GA) 14% 순으로 나타남.
 - 대리점은 법인대리점 비중이 대부분이며, 개인대리점의 비중은 1%대에 불과하여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임.
 - 비대면 채널 비중은 FY2009에는 9.0% 수준까지 높아졌으나, FY2010 1/4분기 들어 7.6% 수준으로 낮아짐.
 - 비대면 채널의 비중이 감소한 것은 홈쇼핑 채널에 대한 광고 규제 강화, 보험회사의 위험률 차익률 관리⁴⁾ 등과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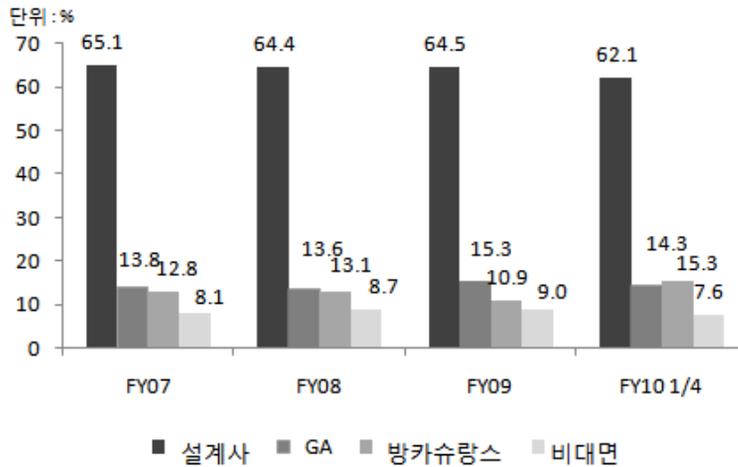
4) 대면 채널에 비해 비대면 채널의 보험금 지급률이 크게 높은 것으로 알려짐. 보험개발원 분석에 의하면, 32세 입원담보의 경우 비대면 채널 사고발생률이 대면 채널보다 2.54배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9〉 판매채널별 개인보험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10 1/4
대면	92.0	91.9	91.3	91.0	92.4
설계사	65.7	65.1	64.4	64.5	62.1
대리점(GA)	11.6	13.8	13.6	15.3	14.3
개인	2.5	2.8	2.2	1.8	1.3
법인	9.1	11.1	11.5	13.6	13.1
방카슈랑스	14.4	12.8	13.1	10.9	15.3
기타	0.2	0.2	0.2	0.2	0.6
비대면	8.0	8.1	8.7	9.0	7.6
TM	4.5	5.0	5.5	5.8	5.4
CM	0.1	0.1	0.1	0.2	0.1
홈쇼핑	2.1	1.8	1.8	1.7	1.0
다이렉트 대리점	1.3	1.1	1.2	1.3	1.0
기타	0.0	0.1	0.0	0.0	0.0

〈그림 9〉 주요 채널의 개인보험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비중



- 연납화 기준 판매채널 비중은 설계사가 방카슈랑스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월납과 일시납을 단순 합계한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계산하면, 방카슈랑스 채널은 보험료 규모가 큰 일시납 비중이 높고, 설계사 채널은 보험료 규모가 작은 월납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방카슈랑스 채널이 60% 수준으로 높게 산출되는 데 비해 설계사 채널은 30% 수준으로 낮게 계산됨.
 - 반면, 본고에서 집계한 데이터와 같이 납입 방법상 차이를 조정한 연납화 보험료 기준으로 산출하면, 아직까지 설계사 비중이 60%를 초과하며 방카슈랑스 비중은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10〉 신계약 집계 방식 별 판매채널 비중 추이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10 1/4
설계사	월납+일시납 초회보험료(A)	51.8	49.1	43.8	37.1	30.8
	월납 초회보험료(B)	65.3	65.4	64.6	64.8	63.0
	연납화 초회보험료(C)	65.7	65.1	64.4	64.5	62.1
방카슈랑스	월납+일시납 초회보험료(A)	39.7	40.0	45.4	52.9	60.4
	월납 초회보험료(B)	13.9	11.7	12.3	9.7	13.4
	연납화 초회보험료(C)	14.4	12.8	13.1	10.9	15.3

자료 : A는 업무보고서상 22개 생명보험회사 실적이며, B와 C는 새로운 기준으로 집계한 21개 생명보험회사 실적지

4. 요약 및 시사점

연납화 보험료 기준으로 신계약 매출의 성과를 분석하면, 납입 방법 간 차이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체로 월납 초회보험료와 유사한 양상을 보임. 따라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연납화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계약을 월납 초회, 일시납 및 연납화 기준으로 구분하여 종목, 판매채널 비중을 살펴보면 현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표 11〉 참조).

- 이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납입 방식(보장성보험은 월납 vs. 금융형보험은 일시납)과 판매채널(보장성보험은 설계사 vs. 금융형보험은 방카슈랑스) 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임.
- 납입 방식을 연 기준으로 조정하는 연납화 기준에 의하면, 전체적인 신계약 추이는 월납 초회보험료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남.

〈표 11〉 납입방법 별 개인보험 신계약 특징 요약

	월납 초회	일시납	연납화 보험료
산출 기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계약의 1회 보험료	최초 1회만 납입되는 계약의 보험료	월(분할)납과 일시납을 연 기준으로 환산
신계약 규모 (FY2009)	- 전체 1조 4,248억원 • 보장성 6,389억원 • 금융형 7,859억원	- 전체 5조원 • 보장성 883억원 • 금융형 4조 9,175억원	- 전체 17조 6,980억원 • 보장성 7조 7,638억원 • 금융형 9조 9,342억원
특징	- 위험보장 목적 - 보장성보험 중심 - 건단 보험료 소액	- 자산 축적 목적 - 금융형보험 중심 - 건당 보험료 고액	월납 계약 가중치 높아져 월납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 연납화 보험료 기준에 따라 FY2006~FY2009 신계약 동향을 보면, 수익성 측면에서는 개선되는 모습이나, 성장성 측면에서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 영역 발굴을 통한 성장성 제고가 필요함.

- 연납화 보험료 규모는 FY2006 18조 3천억원에 달했으나 FY2009 17조 7천억원 수준으로 소폭 하락하였음.
- 신계약 구성 내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장성보험 비중이 크게 높아져 40% 수준을 초과하였으며 이중 사망보장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생존보장 비중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성장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나 사망보장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익성(위험률 차익률)은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회사들이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적 상품(innovative product) 공급, 보험가입 대상자 확대 등 신규 영역을 발굴해야 할 것임.

- 연납화 보험료 기준 판매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설계사가 60%를 초과하는 데 비해 방카슈랑스는 15% 수준에 불과하여 설계사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일시납 기준으로 보면 방카슈랑스 비중이 70%를 초과하는 데 비해 설계사 비중은 20%대에 불과함.
 - 설계사는 초회보험료 규모가 작은 월납 보장성보험 판매에 주력하는데 비해 방카슈랑스는 보험료 규모가 큰 일시납 금융형보험에 경쟁력을 갖기 때문임.

- 생명보험회사의 신계약 매출 정보를 통해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납입 방법을 조정한 연납화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월납 초회보험료와 일시납 보험료를 단순 합계한 방식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생명보험업계에서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기준 데이터를 생성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동부증권 리서치센터, 『보험업』, 2010.3.23.

보험개발원, 『생명보험 비대면채널의 계약속성 및 리스크 분석과 상품운용 전략』, CEO Report, 2008-3, 2008.12.

생명보험 각 사, 상품별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 각 사, 업무보고서 자료.

AXA, “Life Product Overview,” September 2004.

Datamonitor, 『Consumer Targeting in Life and Pension 2010』, September 2010.

Datamonitor, 『Key Consumer Trends for Insurance Providers Post-Recession: Tracking insurance policyholders' behavior in an evolving environment』, August 2010.

Datamonitor, 『Life Insurance in the United States: Industry Profile』, November 2009.

LIMRA,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November 2010.

〈부록 표 1〉 월납 초회보험료 추이(상품 소분류 기준)

(단위 : 억원)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개인보험 합계	14,724	16,147	14,000	14,248	2,680	3,277
보장성보험	6,184	5,414	4,616	6,389	1,160	1,286
종신보험	1,238	1,336	995	1,017	259	207
CI종신보험	2,200	1,468	1,576	3,165	403	590
변액종신보험	424	635	743	878	173	228
변액CI종신보험	452	171	106	59	12	12
정기보험	191	220	241	243	68	40
실손의료보험	11	13	122	186	39	35
장기간병보험	36	7	11	12	4	3
질병보험	733	623	384	353	85	59
상해보험	471	591	222	241	58	49
어린이보험	212	169	132	156	34	47
기타	217	182	83	78	24	14
금융형보험	8,540	10,733	9,384	7,859	1,520	1,991
연금보험	4,901	6,680	5,490	4,960	891	1,182
금리확정형	53	26	9	15	3	2
금리변동형	2,574	2,986	3,012	2,599	525	565
변액연금	2,274	3,668	2,469	2,347	364	615
저축보험	3,639	4,054	3,894	2,899	628	809
금리확정형	0	0	0	0	0	0
금리변동형	1,718	1,229	2,134	2,282	482	609
변액저축	1,921	2,825	1,760	617	146	200

〈부록 표 2〉 일시납 보험료 추이(상품 소분류 기준)

(단위 : 억원)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개인보험 합계	51,615	71,453	38,400	50,058	7,756	16,773
보장성보험	2,470	1,294	758	883	166	186
종신보험	264	211	84	150	36	23
CI종신보험	1,044	542	321	352	81	70
변액종신보험	241	282	214	281	29	81
변액CI종신보험	802	173	67	21	5	0
정기보험	3	6	6	10	1	1
실손의료보험	0	0	0	0	0	0
장기간병보험	3	1	0	0	0	0
질병보험	16	7	11	12	1	1
상해보험	29	39	26	31	8	2
어린이보험	61	31	25	22	3	5
기타	6	4	4	5	2	2
금융형보험	49,145	70,158	37,642	49,175	7,590	16,587
연금보험	41,239	51,568	26,489	32,586	5,087	10,559
금리확정형	2	476	1,050	321	71	18
금리변동형	22,833	21,129	15,682	24,306	3,750	8,335
변액연금	16,575	28,673	9,757	7,959	1,266	2,207
저축보험	7,906	18,590	11,153	16,589	2,502	6,028
금리확정형	0	0	0	0	0	0
금리변동형	3,973	6,369	8,233	15,446	2,279	5,828
변액저축	3,852	11,864	2,920	1,143	223	200

〈부록 표 3〉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추이(상품 소분류 기준)

(단위 : 억원)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개인보험 합계	182,955	201,941	172,912	176,980	33,156	41,195
보장성보험	75,533	66,099	56,389	77,638	14,142	15,607
종신보험	14,974	16,086	11,967	12,235	3,119	2,489
CI종신보험	26,513	17,670	18,949	38,018	4,842	7,090
변액종신보험	5,109	7,654	8,943	10,560	2,084	2,749
변액CI종신보험	5,501	2,072	1,285	713	149	141
정기보험	2,348	2,693	2,952	2,995	816	511
실손의료보험	287	262	1,556	2,320	515	439
장기간병보험	440	90	136	145	44	33
질병보험	8,830	7,486	4,620	4,251	1,020	706
상해보험	6,343	7,804	3,366	3,555	839	704
어린이보험	2,562	2,041	1,588	1,878	404	571
기타	2,626	2,242	1,027	948	289	175
금융형보험	107,422	135,842	116,523	99,342	19,014	25,588
연금보험	62,959	85,330	68,667	62,838	11,214	15,253
금리확정형	660	371	210	214	43	28
금리변동형	33,167	37,951	37,717	33,615	6,674	7,610
변액연금	28,950	46,880	30,740	29,008	4,497	7,615
저축보험	44,463	50,512	47,856	36,504	7,800	10,335
금리확정형	3	3	2	2	1	0
금리변동형	21,016	15,390	26,448	28,927	6,013	7,893
변액저축	23,435	35,083	21,406	7,575	1,786	2,442

〈부록 표 4〉 월납 초회보험료 성장률 추이(상품 소분류 기준)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개인보험 합계	5.1	9.7	-13.3	1.8	-29.1	22.3
보장성보험	-0.3	-12.5	-14.7	38.4	4.2	10.8
종신보험	2.2	7.9	-25.5	2.2	10.2	-20.1
CI종신보험	4.4	-33.3	7.4	100.8	17.8	46.5
변액종신보험	-9.9	50.0	17.0	18.0	-27.2	31.7
변액CI종신보험	8.8	-62.1	-37.8	-44.4	-67.4	-5.6
정기보험	74.9	15.4	9.6	0.8	51.3	-40.4
실손의료보험	-11.5	18.2	870.0	53.1	70.2	-10.1
장기간병보험	-33.5	-79.5	52.5	6.5	161.8	-25.9
질병보험	-25.9	-15.1	-38.3	-8.0	-14.0	-30.7
상해보험	1.0	25.5	-62.5	8.5	15.5	-15.7
어린이보험	-19.8	-20.2	-22.1	18.4	-0.3	41.2
기타	109.9	-16.1	-54.4	-6.3	226.5	-39.4
금융형보험	9.4	25.7	-12.6	-16.2	-43.0	31.0
연금보험	30.8	36.3	-17.8	-9.6	-42.6	32.6
금리확정형	14.5	-51.7	-66.3	69.5	12.8	-17.0
금리변동형	45.8	16.0	0.9	-13.7	-23.9	7.6
변액연금	17.6	61.3	-32.7	-4.9	-57.7	69.1
저축보험	-10.3	11.4	-3.9	-25.6	-43.7	28.7
금리확정형	-97.1	-35.4	-63.9	64.4	995.0	-110.5
금리변동형	-4.4	-28.5	73.7	6.9	26.6	26.4
변액저축	-14.8	47.1	-37.7	-64.9	-80.1	36.6

〈부록 표 5〉 일시납 보험료 성장률 추이(상품 소분류 기준)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개인보험 합계	-7.8	38.4	-46.3	30.4	-39.2	116.3
보장성보험	-27.8	-47.6	-41.4	16.5	-33.6	11.8
중신보험	-40.9	-20.4	-60.1	78.9	106.4	-35.5
CI중신보험	2.9	-48.1	-40.8	9.7	4.1	-13.4
변액중신보험	4.6	16.7	-24.1	31.2	-74.2	177.2
변액CI중신보험	-45.4	-78.4	-61.4	-69.0	-83.0	-98.0
정기보험	54.4	73.5	7.7	59.1	-20.0	36.7
실손의료보험	-	-	-	-	-	-
장기간병보험	-76.6	-74.1	-44.8	-58.7	-100.0	-
질병보험	-77.5	-57.2	66.5	7.6	73.3	-33.3
상해보험	-61.5	33.4	-34.0	19.7	58.9	-73.2
어린이보험	-38.4	-49.9	-18.5	-10.5	-34.6	38.2
기타	-16.3	-23.0	-4.5	9.7	106.1	12.3
금융형보험	-6.5	42.8	-46.3	30.6	-39.3	118.6
연금보험	-8.6	25.0	-48.6	23.0	-45.9	107.6
금리확정형	3528.8	28169.2	120.4	-69.4	-61.9	-74.8
금리변동형	70.5	-7.5	-25.8	55.0	-1.5	122.2
변액연금	-36.7	73.0	-66.0	-18.4	-76.6	74.3
저축보험	6.3	135.2	-40.0	48.7	-19.3	140.9
금리확정형	-	-	-	-	-	-
금리변동형	-15.6	60.3	29.3	87.6	101.5	155.7
변액저축	41.8	208.0	-75.4	-60.9	-88.7	-10.4

〈부록 표 6〉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성장률 추이(상품 소분류 기준)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개인보험 합계	4.5	10.4	-14.4	2.4	-29.3	24.2
보장성보험	-0.7	-12.5	-14.7	37.7	4.2	10.4
중신보험	1.7	7.4	-25.6	2.2	10.2	-20.2
CI중신보험	4.3	-33.4	7.2	100.6	17.7	46.4
변액중신보험	-9.8	49.8	16.8	18.1	-27.4	31.9
변액CI중신보험	7.2	-62.3	-38.0	-44.5	-67.5	-5.9
정기보험	75.8	14.7	9.6	1.4	48.5	-37.3
실손의료보험	-1.8	-8.9	494.6	49.1	65.8	-14.8
장기간병보험	-33.2	-79.6	52.1	6.4	161.0	-25.9
질병보험	-27.0	-15.2	-38.3	-8.0	-13.9	-30.8
상해보험	2.1	23.0	-56.9	5.6	13.9	-16.1
어린이보험	-20.1	-20.3	-22.2	18.3	-0.4	41.1
기타	93.2	-14.6	-54.2	-7.7	201.0	-39.7
금융형보험	8.5	26.5	-14.2	-14.7	-42.9	34.6
연금보험	27.2	35.5	-19.5	-8.5	-42.8	36.0
금리확정형	13.5	-43.8	-43.3	1.9	-8.7	-33.6
금리변동형	47.2	14.4	-0.6	-10.9	-22.9	14.0
변액연금	12.1	61.9	-34.4	-5.6	-58.7	69.3
저축보험	-10.1	13.6	-5.3	-23.7	-43.0	32.5
금리확정형	-96.6	-0.9	-37.6	6.7	438.0	-108.0
금리변동형	-4.7	-26.8	71.9	9.4	28.4	31.3
변액저축	-14.3	49.7	-39.0	-64.6	-80.2	36.7

〈부록 표 7〉 월납 초회보험료 비중 추이(상품 소분류 기준)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개인보험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장성보험	42.0	33.5	33.0	44.8	43.3	39.2
종신보험	8.4	8.3	7.1	7.1	9.7	6.3
CI종신보험	14.9	9.1	11.3	22.2	15.0	18.0
변액종신보험	2.9	3.9	5.3	6.2	6.5	7.0
변액CI종신보험	3.1	1.1	0.8	0.4	0.5	0.4
정기보험	1.3	1.4	1.7	1.7	2.5	1.2
실손의료보험	0.1	0.1	0.9	1.3	1.5	1.1
장기간병보험	0.2	0.0	0.1	0.1	0.1	0.1
질병보험	5.0	3.9	2.7	2.5	3.2	1.8
상해보험	3.2	3.7	1.6	1.7	2.2	1.5
어린이보험	1.4	1.0	0.9	1.1	1.3	1.4
기타	1.5	1.1	0.6	0.5	0.9	0.4
금융형보험	58.0	66.5	67.0	55.2	56.7	60.8
연금보험	33.3	41.4	39.2	34.8	33.3	36.1
금리확정형	0.4	0.2	0.1	0.1	0.1	0.1
금리변동형	17.5	18.5	21.5	18.2	19.6	17.2
변액연금	15.4	22.7	17.6	16.5	13.6	18.8
저축보험	24.7	25.1	27.8	20.3	23.4	24.7
금리확정형	0.0	0.0	0.0	0.0	0.0	0.0
금리변동형	11.7	7.6	15.2	16.0	18.0	18.6
변액저축	13.0	17.5	12.6	4.3	5.5	6.1

〈부록 표 8〉 일시납 보험료 비중 추이(상품 소분류 기준)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개인보험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장성보험	4.8	1.8	2.0	1.8	2.1	1.1
종신보험	0.5	0.3	0.2	0.3	0.5	0.1
CI종신보험	2.0	0.8	0.8	0.7	1.0	0.4
변액종신보험	0.5	0.4	0.6	0.6	0.4	0.5
변액CI종신보험	1.6	0.2	0.2	0.0	0.1	0.0
정기보험	0.0	0.0	0.0	0.0	0.0	0.0
실손의료보험	0.0	0.0	0.0	0.0	0.0	0.0
장기간병보험	0.0	0.0	0.0	0.0	0.0	0.0
질병보험	0.0	0.0	0.0	0.0	0.0	0.0
상해보험	0.1	0.1	0.1	0.1	0.1	0.0
어린이보험	0.1	0.0	0.1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0.0
금융형보험	95.2	98.2	98.0	98.2	97.9	98.9
연금보험	79.9	72.2	69.0	65.1	65.6	63.0
금리확정형	0.0	0.7	2.7	0.6	0.9	0.1
금리변동형	44.2	29.6	40.8	48.6	48.4	49.7
변액연금	32.1	40.1	25.4	15.9	16.3	13.2
저축보험	15.3	26.0	29.0	33.1	32.3	35.9
금리확정형	0.0	0.0	0.0	0.0	0.0	0.0
금리변동형	7.7	8.9	21.4	30.9	29.4	34.7
변액저축	7.5	16.6	7.6	2.3	2.9	1.2

〈부록 표 9〉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비중 추이(상품 소분류 기준)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개인보험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장성보험	41.3	32.7	32.6	43.9	42.7	37.9
중신보험	8.2	8.0	6.9	6.9	9.4	6.0
CI중신보험	14.5	8.7	11.0	21.5	14.6	17.2
변액중신보험	2.8	3.8	5.2	6.0	6.3	6.7
변액CI중신보험	3.0	1.0	0.7	0.4	0.5	0.3
정기보험	1.3	1.3	1.7	1.7	2.5	1.2
실손의료보험	0.2	0.1	0.9	1.3	1.6	1.1
장기간병보험	0.2	0.0	0.1	0.1	0.1	0.1
질병보험	4.8	3.7	2.7	2.4	3.1	1.7
상해보험	3.5	3.9	1.9	2.0	2.5	1.7
어린이보험	1.4	1.0	0.9	1.1	1.2	1.4
기타	1.4	1.1	0.6	0.5	0.9	0.4
금융형보험	58.7	67.3	67.4	56.1	57.3	62.1
연금보험	34.4	42.3	39.7	35.5	33.8	37.0
금리확정형	0.4	0.2	0.1	0.1	0.1	0.1
금리변동형	18.1	18.8	21.8	19.0	20.1	18.5
변액연금	15.8	23.2	17.8	16.4	13.6	18.5
저축보험	24.3	25.0	27.7	20.6	23.5	25.1
금리확정형	0.0	0.0	0.0	0.0	0.0	0.0
금리변동형	11.5	7.6	15.3	16.3	18.1	19.2
변액저축	12.8	17.4	12.4	4.3	5.4	5.9